



# 오클랜드

##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 (녹) 연중 제27주일(군인주일)

2023년 10월 8일 (제2052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근무시간: 수(8am~5pm) 토/일(8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한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이사야서 5,1-7

화답송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이사 5,7ㄱ-ㄴ 참조)

-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주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4,6-9

복음환호송 요한 15,1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1,33-43

영성체송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 성가 ]	8시	입당 439	봉헌 212	성체 238	파견 64(3절)		
	11시	입당 62	봉헌 340	성체 197, 152	파견 260		
연중 제27주일	10월 8일(일)		10월 10일(화)	10월 11일(수)	10월 12일(목)	10월 13일(금)	10월 14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국 바오로	김미숙 말가리다	이은자 마트로나	이명련 파트리샤	황혜정 데레사	이명련 파트리샤	사목회
독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정영희 클라라	최윤기 유스티노 황선희 세실리아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녜스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정인경 가브리엘라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이선미 에스터

■ 10월 목주기도 성월

- 목주기도 : 어떤 기도보다도 아름답고 은총을 많이 내리게 하는 기도이고, 또한 성모마리아가 가장 기뻐하는 선물. 교회력으로 매년 10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목주기도 성월. 로사리오를 목주기도를 의미하는 라틴말 「로사리움」(rosarium)에서 유래된 것이다. 로사리오는 장미꽃다발 혹은 장미화관을 뜻하는 것. 목주기도를 매괴신공이라 부르는 것은 중국에서 목주기도를 매괴, 혹은 매괴신공이라고 한데서 비롯된다. 매괴는 중국에서 많이나는 향기나는 때짚레꽃이다.
- 매 미사 30분 전에 목주기도를 바칩니다.
  - 둘째주(10/8): 세계평화를 위하여
  - 셋째주(10/15): 모든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 넷째주(10/22):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 다섯째주(10/29):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 봉성체

- 유니언구역 : 10월 11일(수) 실버구역 : 10월 12일(목) -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10월 14(토) 11시 미사 : 사목회

■ 모임 및 회의

- 구역장 회의 : 10/8(일) 12:30 교육관 106호
- 사 목 회 의 : 10/8(일) 1:30 교육관 106호
- 오uckland구역 : 10/15(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프리몬트구역 : 10/15(일) 오후 1시 교육관 201호
- 콘트라코스타구역 : 10/15(일) 오후 1시 교육관 107호
- 샌리엔드로 구역 : 10/22(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라모린다 : 10/22(일) 오후 1시 교육관 107호
- 캐스트로밸리구역 : 10/22(일) 오후 1시 대건관 소망방

■ 본당 탁구대회 및 젠가대회(탑무너뜨리기)

- 주일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본당 행사입니다.
- 일시 : 11월 5일(일), 교중미사 후

■ 성경 경시대회

- 일시: 11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 대회방식: 경시대회 범위는 신약성경
  - 1) 전 신자 OX 게임
  - 2) 구역대항: 각 구역에서 대표자 3명 선출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에타,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신금진 요한, 안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 성경 통독

- 10월 바로로 서간 (읽기분량 : 로마서 1.1,-3,31)

■ 예비신자 교리 교육 - 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

- 매주 주일 10:00~10:45, 교육관 106호
- 교리를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밥나눔 안내

- 다음 주일은 밥나눔이 있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 - 삼철오 - 오일사철)

■ 본당 수입/지출 현황

- \* 자세한 내역은 친교실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 북미주 서중부 제 26 차 전체 울드레야 대회

- 일시: 10 월 14 일(토) 오전 9:30 - 오후 4:30
- 장소: 새크라멘토 성 정혜 엘리사벳 한인 성당

■ 2차 헌금

- 오늘(8일) 오uckland 교구 The Catholic Voice(Communication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본당 야유회 미사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사목회와 각 구역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사라(10/9): 심진수
- \*제랄드(10/13) : 김세록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갈**라티아서는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켈트('골' 또는 '갈리아')족 사람들이 오늘날 터키의 수도 앙카라 부근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지역을 '갈라티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과 소아시아의 남쪽 지방을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묶어 '갈라티아' 속주로 명명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이 지역을 두루 방문하여 여러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만큼 사도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깃든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 이 지역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바오로의 사도직에도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닌 그의 권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권위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들에게 종속되는 인물 정도로 바오로를 폄하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갈라티아 신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아마도 55-56년경), 이 편지가 바로 갈라티아서입니다.

바오로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느낀 실망과 서운함은 편지 곳곳에 묻어납니다. 갈라티아서는 다른 서간의 서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사 양식' 부분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바오로의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1,6).

바오로의 격양된 어조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아,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3,1);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어조로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4,20). 자신이 직접 세운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실망과 상심도 매우 컸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한 의화(義化)는 바오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죠. 그런데 갈라티아인들은 이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 즉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1,11)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1,12),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1,15-16) 밝히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합니다(1-2장).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는 회심하여 하나님에게서 직접 사도직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후에 곧바로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직을 한참 수행한 뒤에야(3년 후 그리고 14년 후)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오로의 사도직이 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직의 정당성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은 이가 전하는 복음 역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바오로는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16)는 대명제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갈라 3-4장에서 바오로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경적 논거들을 제시하면서 - 아브라함의 믿음(3,6-14); 후손에 대한 약속(3,15-25); 하가르와 사라(4,21-31) -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참조: 3,13-14). 이어서 5-6장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갈라티아서가 전하는 바오로 사도의 따끔한 질책과 간절한 호소를,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2,17)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2,20)는 바오로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 9월 13일 연중 제24주일 인천주보 3면]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0명	160명	200 명					
주일 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인생
8시	교중미사							
[교무금] 이기만(5-9), 박호영(10), 임윤택(9), 김아룡(10-11), 김원덕(10)					임윤택		익명	본당신부님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10/8(연)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10/10(화)	연	최정자 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부모님/형제	송재복 마가렛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스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10/11(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연	김마르코	가족				
	연	부홍신 마티아	가족	10/11(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연	김화순 안나	가족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10/13(금)	연	송희성 마티아	정요한/가브리엘라
	연	최순일 요셉	가족				
	연	송희성 마티아	유니언 구역				
	연	송희성 마티아	김엘리사벳				
	연	송희성 마티아	김문환 베드로				
	연	송희성 마티아	채성숙 모니카	10/14(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텔/스텔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연	송성호 아벨	송아네스
10/8(일)	생	장만우	송아네스				
	생	황해은 엘러비	김관숙 크리스티나		생	성령기도회 활성화	성령기도회
	생	임계분 레지나	박경림 클라라				
	생	송성숙 아네스	실버구역				
	생	오클랜드 구역원	실버구역				

<p><b>대 건 한 의 원</b>  <b>한의학박사 이 준</b>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b>조미정 공인회계사</b>  <b>세금보고 및 회계감사</b>  <b>Business Consulting</b>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b>김수정 부동산</b>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b>J &amp; J Auto Service</b>  <b>자동차 정비와</b>  <b>바디수리</b>          ☎(510)236-0550  <b>강 요 한</b></p>	<p><b>광고 문의</b>  <b>성당 사무실</b>          510-553-9434</p>
--	---	---	---	--